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2010. 10. 3 창간

창간 8주년 기념호

2018. 10. 1 ~ 2018. 10. 20 제191호



▶ 그리스 데살로니키 집시마을의 아이들

제공: WMM

넌, 나의 최고 걸작품이야!

빨간 종이로 만든 저마다의 작품을 들어 보이며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난 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보았다. 하트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붙였다.

그리고 가장 중심엔 내가 있다. 떠돌이 집시로 태어나 왜 어렵고 고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집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졌다.

“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난 너 때문에 너무 기뻐. 너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GNPNEWS]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31)

다음 호는 10월 21일자로 발행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미얀마 12개 교회, 파괴되거나 폐쇄

반정부 세력의 목표는 기독교의 확산을 막는 것

미얀마 북동부 산 주의 최소 12개 교회가 와족의 반군인 연합와 국가군(UWSA)에 의해 파괴되거나 폐쇄됐다고 27일 모닝스타뉴스가 보도했다.

한 현지 기독교 지도자는 “조상을 숭배하는 와족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했다”면서 “이들의 목표는 산 주에서 기독교의 확산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군 병사들은 교회 십자가를 파괴하는 영상 등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공개했으며 반군세력은 팡산드 지역에 있는 기독교 학교도 함께 폐쇄시켰다.

현지 주민들은 “교회는 물론 기독교 학교까지 철거됐고 일부 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잡혀갔다”면서 “반군은 기독교인들을 풀어주기 전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삭발을 시켰다”고 전했다.

이에 UWSA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교회나 학교를 지어 지역의 불안정성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년 반 동안 무려 60

개의 교회가 군사세력에 의해 파괴됐으며, 사라진 교회 자리 중 20곳에 불상이 세워졌다고 ‘노스우드 처치 인 캘러’의 설립자인 밥 로버츠는 지난 7월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GNPNEWS]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고린도후서 3:11)

기도 | 피난처 되신 예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미얀마 성도들을 하늘소망으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쁘게 동참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승리의 걸음 속에서 박해하는 이들이 교회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모든 미얀마의 영혼들을 건지사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66)

“안 믿는 것이 무슨 그리 큰 죄란 말인가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안 믿을 수도 있지, 꼭 믿어야만 천국 가라는 법 있어?”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을 수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인데 자꾸 죄인, 죄인 하면서 사람을 죄인 취급하더니 죽으면 지옥 간다며 들을 때마다 기분 망치는 소리한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만약 우리나라 안에 대한민국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또 다른 주권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죄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왕정 시대엔 형벌로 3족을 멸하던 죄입니다. 한 나라에 두 주권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더러 죄인이라고 말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역 죄인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람은 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왕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싫어한다면 당연히 반역죄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지옥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형벌이 집행

되는 곳입니다.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껏해야 100년의 경험이 전부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당신의 반역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반역 죄인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러스트= 김경선

당당히 천국 시민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GNPNEWS]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해 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

“정부의 비윤리적 NAP 인권정책, 신앙의 자유 훼손한다” 2면

창간 기획 특집 |

복음기도방송, 영상과 에세이로 복음을 실어 전도해요 4면

인터뷰 | 임치운 목사

“신문으로 전도하며 복음을 선포하다”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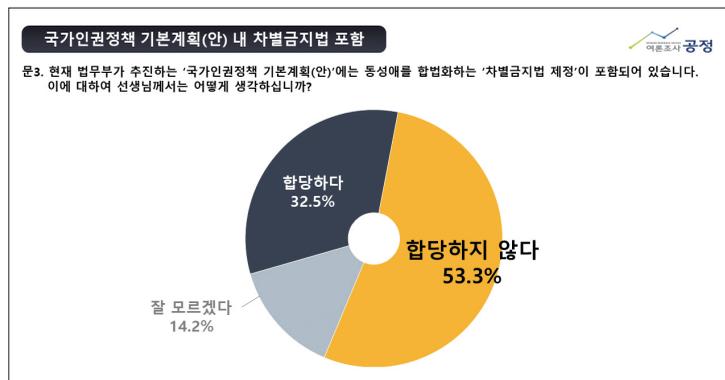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외쳐라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정부의 비윤리적 NAP 인권정책, 신앙의 자유 훼손한다”

살롬나비, 한국교회는 정부의 젠더정책 폐기에 앞장서야... 호소문 발표



▶ 지난 달 7일 법무부가 국무회의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을 보고하기 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7월 30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

기독교시민운동단체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이하 살롬나비)은 정부의 성 해체, 성 해방의 비윤리적 성평등화를 강행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강행을 막기 위해 범교단적으로 단합하여 저항 하자는 호소문을 27일 발표했다. 살롬나비는 지난 8월 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NAP는 양성평등법 시한 헌법 32조와 양성평등기본

법을 전면 무시한 위헌·위법한 행태이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현저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국교회 각 교단들의 퀴어신학과 추종세력에 대한 이단 결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각 교단별로 NAP 젠더정책의 실상과 폐해를 경고하고 반대서명 등 일치된 목소리를 내도록 단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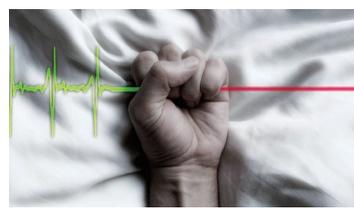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교회는 80년 전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라 국민의례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고 일본도와 군홧발의 협박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교회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 순교적 각오로 반민족적, 반민주적 NAP 젠더정책 폐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사회 윤리를 퇴폐시키는 NAP 젠더정책이 우리나라에 성적 타락과 가정 파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직시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살롬나비는 “NAP 젠더정책은 인권이 아니라, 실상은 거짓인권이고 차별금지다. 하지만 사실은 동성애가 정상적이라는 반성경적 비윤리적 속임수이며 동성애 거짓 인권으로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는 독재적 반민주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GNPNEWS]

10~30대 사망원인 자살이 가장 높아

통계청, 25~29세 복음화율 17.2%로 가장 낮아

통계청은 ‘2017년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10~30대 사망 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민일보가 지난달 27일 보도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44.8%를 차지해 사망 원인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10대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30.9%, 30대는 36.9%였다. 이 신문은 조성돈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대표의 말을 인용, “요즘 청소년·청년 세대를 일컬어 ‘꿈을 잃은 세대’라고 얘기할 만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이들을 찾기 어렵다”면서 “삶에 대

한 가치관이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명의 존귀함이 결여된 채 살아가는 청년세대가 그만큼 자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25~29세(17.20%)로 나타났다. 이어 30~34세(17.96%) 20~24세(18.05%)가 하위권을 형성했다. 35~39세와 15~19세도 19.14%, 20.56%에 그쳤다. 조 대표는 “통계청 자료에 ‘자살한 사람의 종교’에 대한 통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 연



관성을 확인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도 “개인의 세계관에 생명존중 사상이 깊이 자리 잡으면 자살률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대표는 “한국교회가 다음세대 복음화율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기독교청년들 스스로 또래의 비기독교인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GNPNEWS]

중국 정부, ‘한국 기독교 침입 막아라’ 공직자에게 지시

중국 중앙정부가 최근 ‘한국 기독교의 침입을 막고 그 지역에서 교회를 통제하고 기독교를 장악하는 법’을 지방정부 공직자들에게 하달한 비밀문건이 발견됐다고 한국순교자의소리(VOM)가 최근 밝혔다. VOM에 따르면, 차이나에이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종교를 규제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문건을 발견했다. 이 문건은 중국 기독교인과 한국 선교사를 간첩행위와 반정부 활동으로 엮겠다는 의

도가 담겨 있다. 중국은 올해 초 종교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을 발표시킨 데 이어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국 기독교인을 뿌리 뽑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폴리 현숙 VOM 대표는 “중국 정부가 한국 선교사와 중국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규제하면서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처럼 중국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중국 교회와 관계를 끊으려는 한국 기독교인이

많을 것이지만 한국 기독교인들은 중국 교회와 관계 유지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올해 초 종교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을 발표시킨 데 이어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국 기독교인을 뿌리뽑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국 선교계에 따르면, 올 들어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추방됐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9.17 ~ 9.29)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만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인도 법원, 레즈비언 커플 동거 허용 판결

인도 남서단 케랄라 주(州) 고등법원이 레즈비언(여성동성애자) 커플의 동거를 허가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6일 전했다. 이에 따라 동성애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인도의 게이 금지법이 150여 년 만에 폐지됐다.

주님, 동성애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견잡을 수없이 퍼져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이 인도를 불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교회가 진리를 선포케 하시고 듣는 자가 죄에서 돌이켜 살게 되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호주연합교회, 동성혼 인정하고 목회자 주례도 허용

호주연합교회는 최근 열린 총회에서 결혼의 정의를 변경하고 목회자들의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키로 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전했다. 호주는 지난 2017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주민투표를 시행했으며, 찬성 61.6%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죄와 타협하고 있는 호주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진리를 비추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옵소서. 심령을 찢는 회개의 바람을 일으키사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제사장된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게 하옵소서.

나이지리아 동북부서 콜레라 유행... 사망자 100명 육박

유혈분쟁이 이어지는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동북부 지역에서 콜레라가 창궐해 지금까지 1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다고 AF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요베와 보르노 주(州)에서 지금까지 콜레라 환자 3126명이 발생해 97명이 사망했다.

하나님, 분쟁과 전염병에 목숨을 잃어가는 나이지리아의 영혼들을 돌아보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생명들이 전쟁을 그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세계은행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경제 붕괴 직전... 실업률 50%’

세계은행은 24일(현지시간) 낸 보고서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경제 상황이 붕괴 직전이라면서 가자지구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6%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무려 50%가 넘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특히 가자지구의 젊은 층 실업률은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랜 분쟁과 경제 붕괴의 고통에 처한 가자지구의 영혼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영혼들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8년 10월 8일 ~ 10월 20일

- 10월 8일~10월 13일** ▶ 서울 노원 / 봉화현교회 (호**)010-8852-0693, ▶ 인천 남동 / 참빛사랑의교회 (안**)010-7797-1889, ▶ 경남 양산 / 양산교회 (전**)010-4501-0059, 10.8-9, 11~13(매일 20~23시) ▶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 (강**)010-5186-0091, 10.9 (10~12시) ▶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 (김**)010-9218-6023, 10.11 (10~12시) ▶ 경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010-8482-8651, 10.11~13(매일 20~24시) ▶ 전북 전주 / 전주청년세대 (박**)010-9331-4039, 10.12(0~24시) ▶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 (이**)010-010-7709-0691, 10.12(19~21시) ▶ 전남 광주 / 십자가복음교회 (김**)010-9883-2347, 10.12(19~21시) ▶ 충남 서산 / 기도24-365본부 (김**)010-9790-4641, 10.13(0~24시) ▶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 (김**)010-4567-8775

- 10월 15일~10월 20일**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010-7364-9982, 10.15 19(매일 10~12시) ▶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김**)010-6269-4821, 10.15~19(매일 14~19시)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010-5337-2771, 10.15~16, 18~19(매일 10~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10.16(11~13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 (조**)010-5417-9933, 10.16~19(매일 10~12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010-4510-1070, 10.17~19(매일 0~24시) ▶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 (권**)010-7754-1726, 10.18(10:30~12:30) ▶ 경기 수원 / 영여느헤미야기도모임 (오**)010-2349-4641, 10.19(10~14)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10.19(10시)~20(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지상중계 | 복음학교컨퍼런스 - 강서침례교회 편(2)

복음 나눌수록 전교인의 분립개척에 대한 열망 커져



▶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이는 죽고 부활한 새생명임을 선포하는 침례식을 준비하는 김경석 목사(좌) (출처: 강서침례교회)

한국교회가 위기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창세 이후 교회가 위기에 놓이지 않은 적은 없다. 위기의 때에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복음이다. 순회선교단 주관으로 지난 7월에 열린 복음학교 컨퍼런스에서 복음의 진리를 부여잡은 다양한 교회 사례들이 소개됐다. 총체적 복음의 진리를 목회현장에 집중된 이후 일어난 교회의 변화를 들어본다. <편집자>

우리 교회는 전도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도 거의 매주 새로운 영혼들이 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주된 이유는 복음을 만난 분들의 변화된 삶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풍겨 나오는 예수 향기. '어떻게 나랑 똑같이 밥을 먹고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왜 나는 절망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절망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그가 믿는 예수, 그가 다니는 교회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 제 경험을 떠올려보면 전도사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도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을 때는 되는데 곧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학교 다녀와서 알았습니다. 매일 복음으로 사는 게 행복하면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전도를 배워서 하고 성경수십 구절을 머리에 넣고 외워서 하려니까 힘든 것이었습니다. 전도훈련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훈련을 안 받았음에도 주님 만난 분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이끌려서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은 생명의 역사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 만나 변화된 사람보고 교회 나와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한 순간은 '목사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라는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볼 때입니다. 그전에는 행복의 이유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집을 사서 행복해요. 아이가 대학교 가서 행복해요. 병이 나아서 행복해요' 그것

도 행복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더 나아가 깨어지고 망가지는 데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는 만큼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이 드러나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닌 것 위에 쌓아올린 것은 하루라도 빨리 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반가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분들이 나타나면서 지목헌금과 사랑의 헌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지체를 섬겨달라고 교회에 헌금을 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금하시는 분들을 보면 돈이 많고 여유가 많아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도와줘야 할 것 같은 분들이 힘을 내어 헌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달은 십일조가 많이 줄었다고 알려줍니다. 그 얘기는 성도님들의 수입이 줄었다는 것이지요. 십일조가 줄었는데 지목헌금, 구제헌금, 사랑의 헌금이 늘어난 건 무얼 의미하는 걸까요? 본인의 수입은 줄었어도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데에는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통계를 재정부에서 전해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수입이 줄어도 사랑의 헌금 줄지 않아

그동안 몇 교회를 개척을 해왔는데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면서부터 나오는 현상은, 건강한 분립개척에 대한 소원이 성도들로부터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더 키워서 대형교회 반열에 들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은 일단 목사인 저도 안 하고, 성도들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은 분립해서 개척을 하고 그다음에 복음학교를 통해서 제가 배운 조건 없는 연합을 실천합니다. 개척된 뒤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개척한 이후, 모 교회 목사가 소위 '갑질'을 하기 쉽죠. '내가 성도들 몇 십명 때어 주고 헌금도 몇 천만 원 해줬는데 말이야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안 하는 거야'하고 물을 때 이런 걸 갑질이라고 하죠. 우리의 사령관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연합해 가는 교회로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 새로운 지역으로 분립개척을 시작하는 목회자 파송예배(출처: 강서침례교회)

같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려고 주님께 헌신하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 가운데 예수생명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개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하늘가족이야. 우리 영원히 함께 갈 사람이야' 하는 연대의식이 생깁니다. DNA가 통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늘가족 공동체, 예수생명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 생명공동체는 반드시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품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합니다. 그러다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직접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있는 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고 헌신하는 일에 교회가 계속 나아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 공동체, 선교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남게 된다는 것을 지난 7년 동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선포는 생명공동체로 이어져

복음 만난 이후로 하게 된 저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저를 찾아와 주신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 주님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위안을 받습니다. 제가 주님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저를 세워줍니다. '목사님, 형님, 저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갑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공동체에 함께 하시잖아요. 저희를 보고라도 힘내세요' 그러면 어저께 저를 위로했던 분이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님, 이게 복음만 갖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제가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

어 줘야 할 차례임을 깨닫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연합합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기로 한 하늘가족들이 있는 한 복음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순회선교단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 된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복

음이 여전히 이 시대에 능력이고 생명임을 보여줬던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 그런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복음 자체이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끝> [GNPNEWS]

김경석 목사(강서침례교회)

알림

미디어전쟁 시대, 미디어 전사(戰士)를 찾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악한 자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 인권, 진화론 등 수많은 인본주의 사조가 교회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기독교 미디어의 대응이 믿을만하십니까? 숨은 실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불 때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갈고뫄은 미디어 역량을 지금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다양한 선교단체, 선교현장을 여러분의 실력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단체 복음과기도 미디어는 신문, 영상, 단행본,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매체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천하를 평정할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특히 사진과 영상 촬영 편집, 인터넷 웹사이트 관리(특히 워드프레스 플랫폼)역량을 갖춘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사진, 일러스트레이터, 취재, 번역 등 여러 영역의 동역자가 외부에서 이 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 미디어 영역에서 열정을 갖고 계신 강호(江湖)의 고수 또는 관심자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미디어 전사로 동역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070-7417-0408~10, 010-6326-4641, 이메일 gnmedia@gnmedia.org [GNPNEWS]



창간 기획 특집 | 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제작기

인터넷으로 영상과 에세이로 복음을 실어 전도해요

동역자 참여로 복음드라마, 복음에세이 유튜브 공개

“이 상황에서 주인공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감정을 실어서... 자, 그럼 다시 녹음합니다. 쿨!”

충남 서산에 위치한 복음과기도 미디어 사무실의 조그만 창고 벽에 계란판 같은 방음재를 부착한 간이 녹음실의 풍경이다. 두 평도 채 되지 않는 좁은 스튜디오. 앉을 자리가 없어 네댓 명의 출연진이 모두 일어서서 조그만 소형 녹음기를 중심으로 둘러 서 있다. 이곳에서 매주 월요일 유튜브로 공개되는 전도용 복음드라마와 복음에세이가 제작되고 있다.

복음드라마, 복음에세이란 이름의 영상물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은 복음기도신문을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한 것이었다. 2016년 3월부터 신문에 소개된 믿음의 증인들의 고백을 오디오로 제작,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제공했다. 그러다 2017년 12월부터는 전도용 복음드라마 ‘거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제공해왔다.

‘거리에서 만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작되고 있다. 제목 그대로 거리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



▶ 초기 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스튜디오는 매미소리와 바람소리를 배경으로 방석을 스탠드 삼아 소형녹음기 주위로 둘러서서 녹음했다. 현재는 방음재와 마이크 스탠드가 갖춰진 두 평 남짓한 아담한 스튜디오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만들어 지고 있다.



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내용은 본 선교단체에서 출간한 ‘내가 급하다 떼어주는 전도편지 100’과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의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한다.

조건 없이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이 전도용 영상은 미디어 선교사를 비롯, 많은 선교사와 동역자들의 참여로 제작되고 있다. 복음의 진리를 드라마로 극화한 대본을 쓰는 작가, 다양한 녹음에 필요한 모든 커뮤니케이션과 일정을 조율하는 코디네이터, 목소리로 흔쾌히 섬겨주시는 연기자, 자신의 음악을 쓸 수 있도록 기쁨으로 드리는 작곡가, 메시지를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담은 삽화들, 그리고 수정해주는 일러스트 디자이너,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처음 배워가며 영상을 만드는 동역자. 모두가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회복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다. 특히 동역자로 섬기는 전문 배우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첫 화부터 지금까지 목소리 연기로 기쁘게 섬겨주고 있다.

처음에는 마이크 대도 없이 소형 마이크 하나 들고 사무실 방문을 닫고 녹음을 했다. 추운 겨울이라 틀어놓았던 히터 소리와 가까이 있는 학교 종소리, 간혹 비행기 소리가 함께 녹음되어 있어 재녹음을 할 때도 있었다. 특히 여름철의 매미 소리는 아무리 창문을 꼭꼭 닫아도 차단되지 않아 녹음에 애를 먹기도 했다. 그리고 메시지에

맞는 배경사진 한 장을 고르기 위해 하루 종일 고군분투하기도 한다. 극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십 개의 음악을 듣고 고른다.

부족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비전문가의 작업이라 힘들고 영성할 때가 많다. 그러나 약한 자를 들어 주님의 강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복음드라마 ‘거리에서 만난 하나님’은 2017년 12월부터 유튜브와 복음기도신문 사이트의 미디어 코너,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격주로 공개되고 있다. 현재까지 20화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유튜브에서는 ‘복음기도미디어’ 페이지를 검색하거나 ‘복음드라마’로 검색하면 된다. 또한 각 영상의 해당 주소를 복사해 소셜미디어

(SNS)로 전달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지인들에게 전도할 수도 있다.

복음드라마는 애청자들이 이 코너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한 사례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하나님을 떠났던 지인이 죄에 대한 무서움을 담은 영상을 본 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문자를 보내오는 경우도 있다. 진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영상을 본 또 다른 지인은 더 깊은 복음의 교제를 하고 싶으면서 만날 것을 요청해오기도 했다.

한편, 복음드라마를 지인들에게 전달하려면 복음기도미디어 유튜브 채널의 QR코드를 활용해도 된다. 이 코드는 휴대전화의 QR코드 앱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유튜브 페이지로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준다. [GNPNEWS]

복음의소리 316전화... 다양한 믿음의 삶에 대한 질문과 답변



전도 코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1670-3160

“교인들과 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 해요. 그래도 되나요?” “저는 음란물 중독 상태예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십일조를 꼭 해야 하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성경은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하는데 믿음의 지체들을 마음에 품고 용납하는 것

이 너무 어렵다.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일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질문을 할 대상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음기도신문을 발간하고 있는 미디어 선교단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신앙상담전화 316전화(1670-3160)를 지난해 6월에 개설, 이 같은 질문이 있는 사람들을 전화상담으로 섬기고 있다. 그동안 이 상담 전화

를 어떤 사람들이 이용했으며, 또 어떻게 상담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상담 내용 = 복음의소리 316전화를 통해 상담을 희망하는 주제는 구원, 헌금, 관계, 진로,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등 다양하다. 때로는 이단 사이비종교에 빠진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탈출방법을 묻고 호소하기도 한다. 또 신앙생활을 한지는 오래됐으나, 정작 복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어보지 못해 복음의 삶에 대한 궁금증으로 전화를 거는 사람들도 있다.

상담 요원으로 섬기고 있는 김정화 권사는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복음에 무지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분들의 갈급함이 전화를 하게 하는 것 같다”며 “어떤 사람은 상담을 원하지 않고 자기를 응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화 상담시간은 상당히 길어지기도 한다. 이때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전화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상담 요원들의 고충도 있다.

어떤 사람은 전화를 걸어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너무 안타깝다” 상담자들의 의견은 한결 같다. 때로는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말하는 상담 요원들의 태도는 동일했다. 이때는 자신의 고유사역과 생활이 있음에도 상담 요원들은 이 한 통화로 그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 거져 받은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열망 때문이다.

▶상담이 어떻게 이뤄지나 = 상담을 희망하는 내담자가 복음의소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배정된 시간대에 대기하고 있는 상담자의 전화벨이 울린다. 전국 각지에 있는 상담 요원들은 다양한 인생을 살아온 믿음의 증인들이다. 이들이 상담 전화를 받으며, 내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자신의 삶을 나누며 상담에 응하고 있다.

상담 전화의 전화번호는 본지의

1면 기사 하단이나 복음과기도미디어가 제작 배포하고 있는 전도지나 전도책자(내가급하다 떼어주는 전도편지100)에 기재되어 있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시간대별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섬김이들이 자원하여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전화상담으로 섬기고 있는 임치운 목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상담내용이 인간의 근원적이고 존재적인 질문”이라고 밝혔다. 임 목사는 “많은 상담자들이 나의 율음을 주장하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그 문제를 통해 자신을 다루시는 주님을 직면하도록 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담자나 상담자 모두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면서 절망의 상황을 은혜로 누리게 된 것이 그동안 316전화 상담을 통해 얻은 복”이라고 말했다. [GNPNEWS]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신문으로 전도하며 복음을 선포하다”

창간 8주년을 맞는 복음기도신문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증인을 통해 소개하고자 했다. 수소문하던 중 복음기도신문을 전도용으로 사용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증인을 소개 받았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일에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는 전도자 임치은 목사(반석중앙감리교회)를 만났다. <편집자>

전도를 나가는 날이면 세 아이와 함께 분주한 아침이 시작된다. 평소에는 비타민과 전도지를 들고 나가지만 최근 교회창립 3주년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치커피를 준비했다. 개별 포장되어 있는 비타민을 가위로 자르고 커피를 내려 병에 담고 복음기도신문을 접고, 봉투에 스티커를 붙이고 전도지와 함께 담으면 준비완료다. 막내를 업은 아내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큰 가방에 담긴 커피를 들고 교회를 나선다. 이렇게 오늘도 전도가 시작되었다.

- 어떻게 전도하게 되셨나요?
“4년 전 교인이 한 명도 없던 이곳에 부임했습니다. 교인이 없는 상황 때문에 전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 중 하나가 전도였을 뿐입니다. 액면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도=교회홍보=내교회 교인’을 깨뜨리고 단순히 ‘전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때문에 복음기도신문으로 전도하는 날에는 복음 메시지를 외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막무가내로 나가서 신문을 돌렸는데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더군요. 기왕에 나가는 전도이니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점심시간이었어요. 직장인들 다수가 식사하러 밖으로 나가시고, 다 드시고 난 후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전도하기로 정했습니다. 일정은 오전에 교회에 모여서 전도지를 준비합니다. 근처 대학이나 기차역 등, 그날 마음을 주시는 장소를 정하고 이동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기도신문을 나누어주고 마지막에 크게 복음 선포를 하고 끝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순종하기로 결단

- 보통 전도라면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복음 선포는 어떻게 하시나요?
“복음 선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전도를 나가기 싫은 가장



▶ 전도를 위해 동역자들과 함께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방문했다. 오른쪽 사진은 임치은 목사가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전도지만 준비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4년째 전도하지만 전도할 때마다 여전히 믿음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큰 이유 중 하나거든요. ‘길 위의 전도자’라는 영상을 보고 난 뒤 지금까지 이런 방법의 전도를 진행 중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도 듭니다만 정서적으로 어렵고, 사람들의 냉대 어린 시선도 불편하다보니 매 순간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3분여 정도 되는 메시지를 한 주간 준비합니다. 점심시간에 신호를 기다리며 발걸음을 급하게 옮기는 사람들이 급방 듣고 고민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더군요. 십자가는 세상의 이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예화나 스토리가 사실에 근거가 되어 있는지,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머릿속으로 되내이며 준비합니다. 물론 아무리 잘 준비된 메시지라도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일은 ‘전적인 자기 부인’이라는 대가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복음 선포 없이 신문만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땐 주님이 어김없이 돕는 천사들을 보내 매번 넘어진 저를 일으켜주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전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긴 한가 봅니다 (웃음). 최근에는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교회 앞 버스정류장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 매일 아침마다요? 구령의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열정이요? 그렇다면 그건 제 열정이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다양한 전도지를 받고 나누며 제작도 해봤지만 부끄럽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안에서 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감당했을 뿐이었죠. 게다가 사용되는 전도지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질만한 것들, 예를 들면 건강하게 사는 10가지 비결,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는 5가지 방법 등이 전도지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한 쪽지에 교회소개를 넣는 식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인쇄지는 전도보다는 홍보에 가까워보였습니다. 가끔이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제시하는 전도지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내가 하나 되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방향하다 복음을 만나서 존재가 변화된 증인의 고백이 담긴 전도지는 복음기도신문이 유일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기도신문을 전도지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지만 준비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나를 준비시키신 주님

- 그럼 또 뭐가 필요하죠?
“준비되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저였습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못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비’가 오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온 가족이 함께 전도를 나가는데 아이가 유모차에서 잘 앉아있지 않으면 전도가 어려워요. 그러면 아내나 저, 둘 중 한 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전도를 합니다만, 비가 오면 유모차에 아이를 둘 수 없으니 못 나가게 되죠. 전도지도 다 찢게 되고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만 되면 은근히 바빴습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요. 전도 나가기 싫어서요. 그러나 비나 눈 핑계로 전도를 차일피일 미루는 저에게 ‘비나 눈이 와도 복음

은 전해져야 한다’고 선포해버린 아내 덕분에 이제는 핑계 대지 못하고 전도를 나갑니다. 이곳에서 전도를 해온 지 4년이 지났지만 전도를 할 때마다 여전히 믿음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주실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영혼의 담대함을 무장시키기를 반복하죠. 전도 나가는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과 더불어 냉혹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 전도 나가기 전에 먼저 마음 안에서 이런 싸움들이 벌어지는군요. 그럼 외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해 봐도 받지 않는 사람,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번은 복음기도신문을 나눠주며 ‘제 인생을 바꾼 영원한 행복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꼭 읽어 보세요’라고 말하는데 작은 가방 어깨에 걸친 아주머니께서 아무것도 쥐지 않고 있던 두 손바닥을 제게 보이며 ‘아이고, 받을 손이 없네요’라면서 제 앞을 지나치셨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함께 받는 것이라 믿음으로 여기고 있기에, 이전에 그들보다 더 악하게 반응했던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구하며 기도로 올려드리고 지나갑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도처에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힘드셨겠군요. 그런 상황이 또 어떤 게 있나요?
“저와 함께 전도에 참여하는 자녀가 상처를 입는 일도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큰 아이가 올해 5살인데, 저희가 전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더니 어느 날부터 자기도 전도지를 들고 제 옆에서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5살 정도 아이가 무엇을 주려하면 귀여워서라도 웃는 얼굴을 하고 받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몇몇 사람들이 아이가 나누어주는 신문을 본체만체하며 손길을 뿌리치는데, 몇 번 그런 일로 거절감을 느꼈는지 아이가 어느 날은 ‘아빠, 혼자 전도하러 가!’ 하고 말하더군요. 사실 아이의 모습은 전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거절당하는 제 내면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실 거잖아! 왜 굳이 제가 이 일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 혼자 하세요! 저는 하기 싫어요!’라고 소리치고 있는 제 속사람의 연약함을 아이를 통해 보게 해주셨어요. 어찌먼 처음 거절감을 당해보았을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들아. 사람들이 전도를 거절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고난이 따른다’하며 다독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전도를 나가게 되면 먼저 아이에게 말해줍니다. ‘아들아. 사람들이 전도지를 안 받고 거절할 수도 있어’ 그러면 아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아빠! 그건 아무 일도 아니지!’라며 가르쳐준 대로 제게 말해줍니다. 전도의 자리에서 매 순간 믿음으로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떠한지 주님이 아이를 통해 말씀해주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아이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었겠군요?
“그렇죠. 정말 매 순간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한번은 대학교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넓은 캠퍼스 안에서 복음기도신문을 나누어주는데 첫째 아이가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달려오던 자전거와 부딪쳐서 넘어 미터 날아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른 뛰어가 살펴보니 외상은 없는데 아이가 많이 놀랐는지 평평 울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괜찮다고 말한 뒤 울고 있는 아이를 꼭 껴안고 다독여주는데 순간 제 마음에 ‘아빠가 개척교회에서 사역하니 아이들까지 고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는데 저희에게 돌아오는 몫이 겨우 이런 겁니까?’ 아이를 향한

<6면에 계속>



▶ 전도지를 나누다가 쉬고 있는 첫째 하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임마누엘의 복음 (3)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외쳐라

악의 화려함과 거대함이 대단해보이고 교회까지 그 안에 휩쓸려간 다 해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한 날 꿈과 같이 여기실 뿐이다.(시 73:20) 이러한 믿음의 눈이 떠지면 심령에 겸손함이 회복된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시 73:22) 이 말은 복음을 알고 특별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진리를 앞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의 번성함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를 믿지 못하는 내가 짐승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겸손함의 회복을 의미한다.

주님을 믿지 못해 실족한 사람과 실족할 뻔했어도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자신에게서 가능성이나 특별함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하는 것뿐이다. 주님께서 은혜로 자신의 오

른손을 항상 붙드시고 계심을 깨닫는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비틀거리며 몇 번씩이나 되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게는 주님밖에 남은 게 없지!’라며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고 계셨다.

내가 아니라 주님 나를 붙들고 계셔

내 믿음이 특별하다면 실족할 일도 없어야 했고, 잘못된 선택도 없어야 했다. 이런 실수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만 남은 자’로 서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이 붙들어주고 계셨다는 사실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의 눈이 뜨였는가? 환난과 고난의 때에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내가 걱정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외칠 수 있는 말이 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영원불변한 진리가 나를 이끌어 가시며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늘나라도, 시온성도, 생명수도 그 무엇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과 육체와 의지가 쇠약해질 때 영원한 상급되신 하나님을 더욱 붙든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시 73:26) 그리고 하나님을 붙든 자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시 73:28a)는 탄성이 터져 나오게 된다. 이것은 깊은 낙담과 절망 이후 영혼 깊은 곳



일러스트=노주나

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다.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인가? 아니다. 내게 최고의 복은 주님을 가까이함이다! 주님은 나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한평생 사는 동안 그분 때문에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지를 저주받은 모든 영혼들에게 외쳐야한다.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을 멀리하면 당연히 망한다.(시 73:27) 모

든 선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평생 동안 누린 다윗은 ‘여호와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다’(시 23편)고 고백했다. 참된 신자는 내가 원하는 사람, 물질,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도 ‘주님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2017년 2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과 기도복음과기도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복음기도신문 창간 8주년

복음기도신문이 창간 8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후원 등으로 함께 동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보발꾼으로 신문을 거리에서, 가정에서 가가호호 전달하며 믿음의 소식을 전해주시신 동역자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음기도신문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창간기념호를 계기로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2018. 10.
복음기도신문 섬김이 일동

Interview <5면에 이어>

전도 중 일어난 사고, 고난을 영광으로!

미안함이 짜증과 원망으로 바뀌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음이 마땅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전도는 장차 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특권의 자리임을 다시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마시게 하면서 소망 없는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사명에 초청해 주신 주님은 언제나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아니면 상처와 원망만 가득한 시간으로 기억 되었을텐데, 과연 주님이 하셨습니다”

-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신다니 순종해보지 않으면 맞보지 못할 은혜군요. 다른 은혜도 있나요?
“전도를 나가기 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계속 누림의 시간이죠. 저희의 믿음이 순간 순간 흔들리다보니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위로해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복음기도신문이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소개를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전도가 끝날 때까지 신문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며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어느 편 한 두 사

람을 붙들고 한 시간 넘게 복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날씨가 엄청 더울 때인데 평상에 아주머니 네 분이 쉬고 계셔서 신문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단에서 포교활동을 위해 나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이야기하는 걸 멈추고 제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말씀은 안다며 그분들에게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계신지?’ 여쭙보았습니다. 동시에 내가 만난 예수님과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기도신문을 무시하고 필요 없다고 하시던 분들이 ‘당신이 말한 내용이 이 신문에 자세히 나와 있나?’며 복음기도신문을 받아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 더 듣고 싶지만 아쉽네요. 앞으로 기도제목 나눠주세요.
“가정에서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게,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반응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복음기도신문을 받은 모든 사람이 영생과 심판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부딪힘, 갈등함이 일어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일이 충만하게 나타나길 기도해주세요”

Y.K.



“나의 초라한 왕국이 사라지자 진정한 안식이 찾아왔다”

열방을 위해 꽤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됐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서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도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여론의 반응도 제각각인 것을 보게 됐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세상이기엔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이해는 됐다. 나도 한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게 되면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됐다.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세속적 가치가 나를 이끌었다. ‘한대 맞으면, 두 대로 되갚아주는 것’이 승리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기도를 믿었다. 학교에서도, 운동 경기에서도, 공부에서도, 심지어는 주일 학교에서도 다를 바 없었다. 이런 막강한 세상의 가르침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 비현실적 그 자체였다. 자기 부인, 섬



일러스트=이예민

김, 희생은 한가한 소리요, 세상에서 도태되기 딱 맞는 삶의 태도로 여겼다. 말씀 따라 사는 삶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으며 두려웠다.

그러다 복음을 만났다. 내가 실재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허상’임을 알게 됐다.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알게 됐다. 그러나 죄악된 옛 자아가 내겐 너무 자연스러웠다. 복음을 만나고도 나 자신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었

고 내 왕국을 포기할 수 없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죽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나는 이렇게 자신 있게 정답을 제시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를 쓰고 이기려 하고,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살아남고자 하는 나 자신이 보였다.

그런 나를 부인하고 싶었다. 기도했다. “주님! 저의 전부가 되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 아닌 모든 것이 사라지겠죠. 비록 후회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요” 그런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한 이후,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는 사이, 그동안 내가 엄청난 착각을 했음을 알게 됐다. 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여겼다는 사실이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완전히 망하고 그렇게 끝이 난 줄 알았다. 애초 내가 생각하고 짐작했던 것과 뭔가 좀 달랐다. 전혀 다른 끝에 도달해 있었다. 세상으로부터 제외될까 봐 두려워 멈출 수 없었던 나의 모든 경쟁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초라한 왕국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비로소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간 느낌이었다.

이제야 인간들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어 주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 나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주장도 끝이 났다. 기꺼이 지는 편을 선택하여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 있고, 십자가의 자리를 택할 수 있다. 항상 진리 편을 택하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다. 그건 아내에게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과 같은 소소한 일상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내주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신다. ‘네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알지? 모르는 척하지 말아라’ 놀랍게도 주님께 순종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면 전혀 다른 승리,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열방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짐을 깨닫는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에 달려 있지 않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국제 정세... 그 어느 것 하나 조용한 것 없고, 교회를 핍박하려는 움직임, 비록 교회의 배도 소식이 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심이 믿는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실상이기 때문이다. [GNPNEWS]

정요한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이산상봉 참여한 북주민, 韓 친척이 준 금품을 北 정권에 빼앗겨”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이산상봉 후 충성자금 헌납 제의, 아무도 반대 못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달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충성자금’ 명목으로 한국 측 가족이 제공한 현금을 수탈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북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옛말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보다 더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달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한국 친척들에게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충성자금으로 국가에 바쳤다”고 말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끝나는 대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양사업과 총화사업을 실시했다. 한국 가

족들과 접촉하면서 묻은 ‘자본주의의 때’를 벗겨 낸다는 명분이다.

총화 사업은 한국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선물 목록을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소식통은 “이 때 한국 친척이 준 현금은 물론 선물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는데 사탕 하나라도 빠뜨렸다가는 큰 사달이 날 수 있다”며 “당국의 의도를 잘 아는 북한 주민들은 현금 액수와 선물의 종류, 수량을 낱낱이 신고한다”고 했다.

소식통은 이어 “신고 절차가 끝나면 주민 중 누군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이번에 당과 조국의 크나큰 은혜로 남쪽에 있는 이산가족을 상봉하게 됐다. 당과 조국에 성의를 표시하자’며 충성자금을 바칠 것을 제의한다”며 “그러면 눈치 빠른 나머지 사람들이 ‘웁소’하면서 박수로 충성자금 헌납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충성자금을 바치자고 맨 처음 제의를 한 사람은 당연히 사전에 정권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라며 “다른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감히 자금 헌납에 반대하고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지난 8월 19일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루 앞두고 속초 한화리조트에 집결한 남측 가족들이 북측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들이 줄을 지어 있다(출처: koreaherald.com 캡처)

소식통은 또 “충성자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는 명부를 돌려 본인이 알아서 금액을 적도록 하고 있다”며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냈는지 눈치를 살피다가 한국 친척에게서 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를 적어 낸다”는 세부 정황도 언급했다.

RFA에 따르면 나머지 절반의 현금도 대부분 북한 정권의 손으로 들어간다. 이산상봉행사를 위해 정권에서 제공한 옷과 선물, 상봉행사에 앞서 한 달 동안 실시한 집체교육 숙식비 등을 주민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평안북도의 한 소식

통은 “주민들은 고향에 돌아가면 상봉행사에 간여한 간부들에게도 인사치레해야 한다. 동네 이웃들에게 술 한 잔 내는 비용도 필요하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봉행사가 끝나고 한국 가족이 준 돈은 별로 남지 않는다.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써 빚을 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전했다.

한국 측 가족은 지난달 상봉행사에서 내의, 방한복, 생필품, 의약품 등 준비한 선물을 북측 가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은 미화 1500달러 이내로 건넬 수 있다.

[GNPNEWS]



지금 결정하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기도를 막는 가장 일반적인 방해물이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세상 모든 것이 손을 잡고 우리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은 기도생활을 위해 전쟁 중이다. 그러므로 촉구한다.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라. 지금 곧바로 결정하라.

당신의 주의를 기도에서 떼어놓으려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당신의 원수다. 전쟁을 선포하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에 공격태세를 취하라. [GNPNEWS]

<기도하고 싶은데... (2018), 밥 소르기, 규장판>



뷰즈인 아트
Views in Art

조지아 오키프의 <랜초스 교회>

예수님을 닮은 교회

올바른 전도와 선교 방식은 '거지가 또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서 푸짐한 한 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한다. 고압적인 태도는 오히려 복음의 전달을 방해하거나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기도 한다. 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동일한 눈높이에서 공감하며 전달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방식, 곧 하나님의 선교를 닮았다. 미국 뉴멕시코 원주민의 전통 건축 양식인 어도비(adobe)양식으로 지어진 랜초스 교회는 1772년 이곳에 심어진 복음의 열매였다. 이 작은 교회는 독특한 건축양식 때문에 '마치 그 땅에서 싹 트고 자라난 것'처럼 보인다고 일컬어졌는데, 유럽의 위풍당당한 고딕 교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랜초스 교회'를 그린 미국의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는 사진뿐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여 그림만큼 이 교회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녀가 이처럼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미국의 시골학교 교사 출신이었던 오키프는 뉴욕으로 거처를 옮긴 뒤, 미술계의 큰손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를 만났다. 그의 정부(情婦)로 6년간 동거 끝에 마침내 결혼하게 됐다. 그러나 오키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스티글리츠의 외도로 파경에 이르고 만다. 스티글리츠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오키프는 항상 손가락질에 시달렸고, 그녀의 재능은 스캔들로 인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20세 연상이며 유부남이었던 이 예술가와의 동거는 항상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스티글리츠가 오키프보다 더 젊고 유능한 여류 화가와 떠난 1929년, 그녀는 화려한 뉴욕을 등지고 인적이 드문 서부의 뉴멕시코로 향했다. 그때 그려던 작품이 바로 '랜초스 교회'(Ranchos Church)다. 이후 그녀는 다시 뉴욕에 돌아가지 않았다. 뉴욕에서 얻



은 명성과 굴곡 많은 결혼 생활을 뒤로 한 채, 오키프가 텅 빈 황무지에서 발견한 것은 교회의 독특한 형태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오랫동안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그녀의 눈에 이 작은 교회는 경멸에 찬 눈으로 흘끗거렸던 뉴욕커와

는 달라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억압적이지도 않으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은 랜초스 교회의 소박한 모습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상황화'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닮아 있었다. [GN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작품설명: 조지아 오키프, <랜초스 교회>, 1929-30년, 유화, 60.3 x 90.3cm, © The Georgia O'Keeffe Foundation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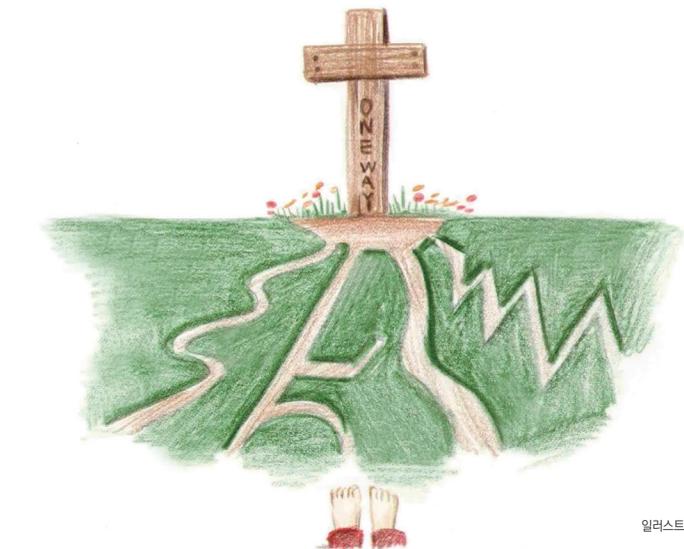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지렁이를 바라보다 저의 지난 삶이 떠올랐습니다”

한 주 동안 합숙으로 진행되는 신앙훈련에 섬김이로 참여할 때의 일입니다. 훈련생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햇빛이 파사로이 비치는 훈련장 외부에서 있었습니다. 마침 비가 그친 다음이라 상쾌한 공기를 맞으며 이동하는 훈련생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을 때, 발 밑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지렁이였습니다. 비는 지나가고 이제 뜨거운 해가 떠오르는 중인데, 때를 놓친 지렁이가 보도블록 위에까지 올라와 기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 바로 옆은 차가 다니는 도로였고 지렁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곳이 주위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꽤 먼 거리를 기어 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앞도 볼 수 없고,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몰라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에 흥미가 생겨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지렁이는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러다 타 죽을 텐데, 구해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발밑을 다시 내려다본 순간, 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마른 보도블록 사이를 뚫고 올라온 작은 풀 한 포기. 지렁이가 몸으로 천천히 감싸고 있는 것



일러스트= 이수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듯이 그 풀 한 포기 아래에서 모든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거기서 죽기를 작정한 듯 지렁이는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고, 방향하지도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렁이가 다른 곳으로 가지도 않고 그곳에서 죽기를 작정했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제 모습과 지렁이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먼 거리를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국 어디로 가야 할지 이리저리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훈련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훈련받는 것으로는 방향하는 존재적 죄인인 저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황량한 길 위에서 타 죽을 수밖에 없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갈 바를 몰라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헤매던 제게 예수님이 찾아 오셨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님은 언제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옛 생명의 죽음에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자비의 초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제게 안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신앙 훈련도, 지

금 섬기고 있는 역할도,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잠시 정체된 것 같은 현재의 삶의 자리도, 느껴지는 고독도, 모두 십자가에서 안식하기를 바라시며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지렁이가 있던 곳에 가보았습니다. 지렁이는 없고 풀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을까? 죽어서 누군가 치운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죽어야 할 곳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죽은 십자가. 이제 죽어도 거기서 죽고 살아가도 거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헌신했지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의 삶을 볼 때, 답답함과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 삶의 모양이 어떻든, 내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십자가 뿐이기에 오늘도 제게 아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달려갑니다. 오직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하고 언제든지 일어나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GNPNEWS]

고강건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8. 9. 7 ~ 9. 26 (가나다 순)

개인
강은진 강종채 권혜령 김동영 김란숙 김사회 김선희 김성훈 김수미 김유남 박승은 박용순 안병윤 윤경석 은종숙 이경형 이복길 이영선 이은주 이정희 이진희 장근혜 정영숙 조경미 조상국 차인순 최근희 최영환 최정숙 황하미 무명

교회 및 단체

그루티교회 새순교회 은혜신일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주만교회 주교회사미션21 트리니티소프트 하원교회 햄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